

병원직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조사

류향진*, 유승흠**, 박은철***, 김정인****, 손태용†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국립암센터 암정책관리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한대학 의무행정과†

<Abstract>

Study on Hospital Staff's Recognition toward Opening of Medical Services Market

Hyang Jin Ryu*, Seung Hum Yu**, Eun Cheol Park***, Jung In Kim****, Tae Yong Soh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ivision of Cancer Policy and Management, National Cancer Cente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Yuhan College†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hospital staff 's recognition on the opening of the medical services market, their attitude to the opening - agreement and disagreement, and their intention to use a foreign hospital or to consult its doctors again. It was conducted for 450 employees of one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Korea with systemized questionnai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edical technicians showed the highest level recognition on the opening of the medical services market.

† 교신저자 : 손태용(02-2610-0842, sohnty@yuhan.ac.kr)

Second, The percentage of agreement to the opening was the highest for medical technicians and lowest for doctors while that of agreement was the highest for doctors and lowest for nurses. For residents, among doctors, the percentage of disagreement was the lower than that of agreement.

Third, the intention to use a foreign hospital and to consult its doctor again was the lowest for medical engineers and the highest for doctors.

Fourth, The most urgent task for local hospitals to accomplish in response to the opening was the improvement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ologies for nurse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provided by the hospital staff for the others. For doctors, in particular, the improvement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ologies was just the fourth urgent task.

In conclusion, the result varies to the type of occupation. Apparent difference was found for doctors, in particular, that seem to be directly affected by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s market. Local hospitals and doctors, therefore, should make efforts together to improve the diagnosis and treatment technologies. All the hospital employees of every type of occupation, meanwhile, need to prepare for the opening with medical service of improved quality.

Key Words : Agreement, Disagreement, Hospital Staff's, Opening Market, Recognition.

I. 서 론

세계는 점차 하나가 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다. 모든 것이 글로벌 표준 또는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아야 한다. 이미 한국인도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의료비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지불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국내 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의료시장개방의 과제까지 생겼다(유승흠, 2006).

현재까지 각국은 보건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을 내세워 의료시장을 보호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기관의 해외 설립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자연히 의료

인의 이동과 환자의 해외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의 무역이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인천자유지역에 외국병원이 설립되어 내·외국인 진료를 하게 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됨은 물론, 국내 의료시스템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유승흠, 2005).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많으나 대부분 양허안·양허요구안이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정영호 등, 2002; 정영호 등, 2004), 법적인 문제(정동진, 2004), 문헌조사를 토대로 한 대응방안을 제시한 연구(손영숙, 1995; 김기정, 1997; 2003; 정기택, 2003; 정영호 등, 2003; 김영철, 2004)이다.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전문가 중심의 연구이며, 실제로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에 외국병원이 개원하게 될 때 직접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는 많지 않다.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학병원 관리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조사연구’(박동수, 1995)에서는 병원직원의 전 직위·전 직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의료시장개방은 병원의 일부 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직원 모두가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므로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하여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 목적은, 첫째, 병원직원의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정도와 태도를 비교하고, 둘째, 병원직원의 일반적 특성별 외국병원 이용의사와 재진단의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은 1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약 2,000명, 입원 병상 수 약 600병상, 병원직원 약 1,100명인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한 대학병원의 직원으로 하였다. 병원직원은 용역직과 임시직을 제외한 정규직원을 말하며, 이하 직원이라고 한다.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태도·대응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인식 정도 1문항, 정보원 1문항으로 하였고,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발생할 현상에 대한 8문항은 이해중(2003)의 시장개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하였으며 5점 척도로 하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태도는 의료시장개방

에 대한 찬·반의견과 찬·반 이유와 외국병원 이용의사·재진단의사는 윤여룡(2003)이 외래 환자의 병원선택 요인과 의료시장개방 시 외국병원 선택요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현안과제에 대한 4문항은 정영호 등이(2004)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에 사용하였던 문항으로 5점 척도로 하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은 박동수(1995)가 사용하였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5점 척도로 하였다. 설문지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태도·대응방안을 이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도구의 Cronbach coefficient alpha값은 0.79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10월 6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사전조사를 시행하였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200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직원이 직접 기입하게 하였으며, 470부를 배포하여 450가 회수되어 총 회수율은 95.7%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일반적 특성별 찬·반 태도는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인식정도의 차이는 분산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태도 차이는 교차분석 χ^2 (p)을 하였고,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외국병원 이용의사,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직종의 기타(약무직)는 의료기사직으로 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자수는 총 450명이었다. 성은 여자가 67.8%로 남자 32.2%보다 많았으며, 나이는 34세 이하가 80.0%이었다. 직종은 간호직이 51.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의사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원이 64.9%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근무 총 경력은 5년 이하가 53.1%로 가장 많았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빈도	
성	남	145(32.2)
	여	305(67.8)
나 이 (세)	34이하	360(80.0)
	35이상	86(19.0)
	무응답	4(1.0)
학 력	전문대졸	195(43.3)
	대 졸	209(46.5)
	대학원졸이상	46(10.2)
월수입 (만원)	199이하	19(4.2)
	200 ~ 399	157(34.9)
	400이상	203(45.1)
	무응답	71(15.8)
직 종	행정직	61(13.6)
	의료기사직	75(16.7)
	의사직	79(17.6)
	간호직	231(51.3)
	기 타	4(0.8)
직 위	과장급이상	7(1.6)
	계장급	50(11.1)
	일반직원	314(69.8)
	전문의	19(4.2)
	전공의	42(9.3)
	수련의	18(4.0)
총경력 (년)	5이하	239(53.1)
	6 ~ 10	97(21.5)
	11 ~ 15	49(10.9)
	16이상	21(4.7)
	무응답	44(9.8)
계	450(100.0)	

2.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혀 모른다(1점)”, “모르고 있다(2점)”, “보통이다(3점)”, “알고 있다(4점)”, “매우 잘 알고 있다(5점)” 로 5점척도로 구성하였다. 인식정도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3.52점으로 여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나이는 35세 이상이 3.68점으로 높았다. 근무부서별로는 진료지원부서가 3.58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경력은 5년 이하에 비하여 많을수록, 직위는 일반직원에 비하여 높을수록 인식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사의 경우 수련의가 3.31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했고, 전공의, 전문의 순이었다. 월수입과 학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3.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태도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문항에서 의료기사직이 4.01점, 4.05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의사직이 3.30점, 3.17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대국민간보험제도의 도입 문항에서는 행정직이 3.69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간호직이 3.32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표 3>.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태도는 찬성률이 여자가 74.4%로 남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이 79.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간호직, 행정직 순 이었으며, 의사직은 45.6%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원에 비해 직급이 높을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료시장개방 반대율은 직종별로는 의사직이 35.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간호직이 6.9%로 가장 낮았고, 의사직 중 전공의가 42.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아 찬성률보다 높았다. 그 외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표 2>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정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 분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	남	3.52±0.79	3.17**
	여	3.27±0.75	
나 이 (세)	34이하	3.28±0.76	4.51***
	35이상	3.68±0.74	
월수입 (만원)	199이하	3.11±0.81	2.15
	200-399	3.37±0.74	
	400이상	3.45±0.75	
학 력	전문대졸	3.30±0.71	2.25
	대졸	3.37±0.80	
	대학원졸이상	3.57±0.89	
직 종	행정직	3.42±0.72	3.30*
	의료기사직	3.58±0.69	
	의사직	3.26±0.91	
	간호직	3.29±0.75	
직 위	과장급이상	4.00±0.00	4.79***
	계장급	3.80±0.60	
	일반직원	3.31±0.74	
	전문의	3.31±1.06	
	전공의	3.23±0.88	
	수련의	3.33±0.84	
총경력 (년)	5이하	3.22±0.76	7.67***
	6-10	3.39±0.80	
	11-15	3.63±0.67	
	16이상	3.86±0.85	
계		3.35±0.77	

* p<.05, ** p<.01, *** p<.001

<표 3>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태도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 분	행정직	의료기사직	의사직	간호직	전체	F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강화	3.80±0.71	4.01±0.63	3.30±0.90	3.86±0.62	3.78±0.73	16.12***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3.87±0.65	4.05±0.74	3.17±0.88	4.00±0.59	3.85±0.75	30.65***
영리법인 허용	3.30±0.90	3.32±0.98	3.19±1.29	3.24±0.79	3.25±0.90	0.33
대체민간보험제도 도입	3.69±0.88	3.64±0.90	3.40±1.11	3.32±0.92	3.44±0.95	3.82**

** p<.01, *** p<.001

<표 4>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반 태도

단위 : 명(%)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무응답	전체	χ^2	
성	남	98(67.6)	29(20.0)	14(9.7)	4(2.7)	145(100.0)	9.3**
	여	227(74.4)	31(10.2)	43(14.1)	4(1.3)	305(100.0)	
나이 (세)	34이하	258(71.7)	49(13.6)	48(13.3)	5(1.4)	360(100.0)	2.96
	35이상	65(74.7)	10(12.1)	8(9.6)	3(3.6)	86(100.0)	
	무응답	2(100.0)	0(0.0)	0(0.0)	0(0.0)	4(100.0)	
월수입 (만원)	199이하	13(68.4)	6(31.6)	0(0.0)	0(0.0)	19(100.0)	7.1
	200~399	114(72.7)	20(12.7)	20(12.7)	3(1.9)	157(100.0)	
	400이상	152(74.9)	26(12.8)	23(11.3)	2(1.0)	203(100.0)	
	무응답	46(64.8)	8(11.3)	14(19.7)	3(4.2)	71(100.0)	
근무 부서	행정부서	39(69.6)	8(14.3)	7(12.5)	2(3.6)	56(100.0)	43.2***
	진료지원부서	75(81.5)	9(9.8)	7(7.6)	1(1.1)	92(100.0)	
	진료부서	39(49.4)	27(34.2)	11(13.9)	2(2.5)	79(100.0)	
	간호부서	172(77.1)	16(7.2)	32(14.3)	3(1.3)	223(100.0)	
학력	전문대졸	146(74.9)	19(9.7)	26(13.3)	4(2.1)	195(100.0)	5.6
	대졸	150(71.7)	31(14.8)	25(12.0)	3(1.4)	209(100.0)	
	대학원졸이상	29(63.0)	10(21.7)	6(13.0)	1(2.2)	46(100.0)	
직종	행정직	43(70.5)	9(14.8)	7(11.5)	2(3.3)	61(100.0)	57.5***
	의료기사직	63(79.7)	8(10.1)	6(7.6)	2(2.5)	79(100.0)	
	의사직	36(45.6)	28(35.4)	13(16.5)	2(2.5)	79(100.0)	
	간호직	183(79.2)	16(6.9)	31(13.4)	2(0.9)	231(100.0)	
직위	과장급이상	6(85.7)	0(0.0)	1(14.3)	0(0.0)	7(100.0)	52.1***
	계장급	40(80.0)	5(10.0)	3(6.0)	2(4.0)	50(100.0)	
	일반직원	243(77.4)	27(8.6)	39(12.4)	5(1.6)	314(100.0)	
	전문의	11(57.9)	4(21.1)	4(21.1)	0(0.0)	19(100.0)	
	전공의	16(38.1)	18(42.9)	8(19.0)	0(0.0)	42(100.0)	
	수련의	9(50.0)	6(33.3)	2(11.1)	1(5.5)	18(100.0)	
총경력 (년)	5이하	167(69.9)	32(13.4)	37(15.5)	3(1.2)	239(100.0)	6.8
	6~10	75(77.3)	12(12.4)	8(8.2)	2(2.1)	97(100.0)	
	11~15	40(81.6)	4(8.2)	4(8.2)	1(2.0)	49(100.0)	
	16이상	16(76.2)	1(4.8)	3(14.2)	1(4.8)	21(100.0)	
	무응답	27(61.4)	11(25.0)	5(11.3)	1(2.3)	44(100.0)	
계	325(72.2)	60(13.3)	57(12.7)	8(1.8)	450(100.0)		

** p<.01, *** p<.001

4. 외국병원 이용의사·재진단의사

‘외국병원의 진료비는 국내병원보다 비쌀 것인데, 외국병원을 이용하겠는가’에 성은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이용의사가 높았으며, 월소득 200-399만원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이 3.43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의사직이 2.84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직위별로는 계장급이 3.34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의사직은 수련의가 2.89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전공의, 전문의 순이었다. 학력과 총경력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국내병원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경우 외국 병원에서 같은 질병에 대해 재진단 받을 의사가 있는가’에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이 3.41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의사직이 2.7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직 중 전공의가 2.88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수련의, 전문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원졸 이상에 비하여 낮을수록 재진단의사가 높았으며, 직위는 일반직원이 3.47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다. 그 외 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5>.

5.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병원의 최우선 개선과제

직종별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병원의 최우선 개선과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행정직·의료기사직·의사직은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1순위였으며, 간호직만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의 향상이었다. 2순위는 행정직과 의료기사직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의 향상이었고, 의사직은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감 해소, 간호직은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향상이었다. 의사직은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의 향상이 4순위에 그쳤다<표 6>.

6.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성, 나이, 학력, 월수입, 직종, 직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직종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행정직에 비하여 의사직이 비차비(odds ratio) 10.845로 의료시장개방에 매우 많이 찬성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직은 비차비가 0.258이었다<표 7>.

<표 5> 일반적 특성별 외국병원 이용의사 및 재진단의사

단위 : 평균±표준편차

구 분		외국병원 이용의사	t or F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	t or F
성	남	3.18±0.91	-2.21*	3.22±0.95	-1.52
	여	3.35±0.97		3.37±0.93	
나 이 (세)	34이하	3.29±0.79	-0.65	3.35±0.92	1.15
	35이상	3.35±0.86		3.22±1.03	
월 소 득 (만원)	199이하	2.79±0.71	4.32*	2.95±0.97	1.95
	200~399	3.35±0.77		3.31±0.93	
	400이상	3.32±0.81		3.38±0.94	
근무부서	행정부서	3.27±0.82	6.28***	3.41±0.89	7.77***
	진료지원부서	3.41±0.74		3.33±0.94	
	진료부서	2.91±0.97		2.82±0.96	
	간호부서	3.40±0.72		3.44±0.90	
학 력	전문대졸	3.35±0.71	1.16	3.38±0.93	4.78**
	대졸	3.29±0.83		3.35±0.92	
	대학원졸이상	3.15±0.99		2.91±1.02	
직 종	행정직	3.23±0.76	8.47***	3.30±0.94	8.37***
	의료기사직	3.43±0.76		3.41±0.97	
	의사직	2.84±0.93		2.79±0.96	
	간호사직	3.31±0.81		3.33±0.92	
직 위	과장급이상	3.14±0.90	5.93***	2.86±1.07	7.24***
	계장급	3.43±0.65		3.26±0.94	
	일반직원	3.38±0.75		3.47±0.89	
	전문의	2.84±1.17		2.63±1.12	
	전공의	2.85±0.88		2.88±0.86	
	수련의	2.89±0.83		2.78±1.00	
총 경 력 (년)	5이하	3.28±0.76	0.61	3.33±0.89	1.71
	6~10	3.41±0.85		3.50±0.95	
	11~15	3.33±0.72		3.29±1.04	
	16이상	3.29±0.96		3.05±1.02	
계		3.30±0.80		3.32±0.94	

** p<.01, *** p<.001

<표 6> 직종별 국내병원의 최우선 개선과제 단위 : 명(%)

구 분	행정직	의료기사직	의사직	간호직	전체	χ^2
진단 및 치료기술의 향상	18(29.5)	26(32.9)	9(11.4)	92(39.8)	145(32.2)	94.8***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	27(44.3)	29(36.7)	28(35.5)	44(19.1)	128(28.5)	
대기시간 불편감 해소	11(18.3)	10(12.7)	12(15.2)	20(8.7)	53(11.8)	
외국어 능력 함양	1(1.6)	3(3.8)	4(5.1)	32(13.9)	40(8.9)	
의료시설 의료장비 보완 및 교체	1(1.6)	1(1.3)	6(7.6)	20(8.7)	28(6.2)	
이용절차의 개선	1(1.6)	4(5.1)	10(12.7)	9(3.9)	24(5.3)	
편의시설의 확충	0(0.0)	4(5.1)	5(6.3)	5(2.2)	14(3.1)	
무응답	2(3.3)	2(2.6)	5(6.3)	9(3.9)	18(4.0)	
계	61(100.0)	79(100.0)	79(100.0)	231(100.0)	450(100.0)	

*** p<.001

<표 7>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비차비	95%신뢰구간	p 값	
성	남	1.000		
	여	2.349	0.878 - 6.285	0.0891
나 이	1.404	0.462 - 4.268	0.5496	
학 력	전문대졸	1.000		
	대졸	1.050	0.485 - 2.275	0.1173
	대학원졸이상	1.334	0.335 - 5.312	0.9245
월수입 (만원)	400이상	1.000		
	200 ~ 399	0.288	0.082 - 1.012	0.0522
	199이하	0.277	0.078 - 0.984	0.0471
직 종	행정직	1.000		
	의료기사직	0.258	0.083 - 0.800	0.0190
	의사직	10.845	2.578 - 45.623	0.0011
	간호직	0.753	0.220 - 2.579	0.6516
직 위	일반직원	1.000		
	계장급	0.278	0.371 - 1.661	0.2277
	과장급이상	1.107	0.202 - 4.882	0.8364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0.936	0.582 - 1.506	0.7852	

χ^2 of likelihood ratio = 48.826 (p<.0001)

7. 의료시장개방 인식, 외국병원 이용의사·재진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외국병원 이용의사·재진단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성, 나이, 학력, 월수입, 직종, 직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인식이 0.289배 낮았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인식정도가 0.258배 낮았다.

외국병원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월수입 400만원이상에 비하여 200-399만원, 199만원이 각각 0.497배, 0.437배 낮음을 알 수 있다($p < 0.05$).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과 직종, 직위였다. 여자보다 남자가 재진단의사가 0.552배 낮았고, 직종은 행정직에 비하여 의사직이 0.654배 높았으며, 의료기사직은 0.322배 낮았다. 직위는 일반직원에 비하여 계장급이 0.603배 높았다<표 8>.

<표 8>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외국병원 이용의사·재진단의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변 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외국병원 이용의사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	
	회귀계수	p 값	회귀계수	p 값	회귀계수	p 값
성(기준=여)						
남	-0.289	0.018	-0.133	0.311	-0.552	0.000
나이	-0.258	0.042	-0.201	0.141	-0.031	0.843
학력(기준=전문대졸)						
대졸	-0.047	0.600	-0.053	0.587	-0.131	0.241
대학원졸이상	-0.144	0.137	0.031	0.869	0.139	0.522
월수입(만원)						
(기준=400이상)						
200-399	-0.151	0.409	-0.497	0.012	-0.330	0.144
199이하	-0.271	0.137	-0.437	0.026	-0.494	0.029
직종(기준=행정직)						
의료기사직	-0.150	0.285	-0.326	0.030	-0.322	0.063
의사직	0.134	0.423	0.246	0.170	0.654	0.002
간호직	-0.271	0.061	-0.244	0.117	-0.133	0.456
직위(기준=일반직원)						
계장급	-0.188	0.114	0.163	0.533	0.603	0.046
과장급이상	-0.052	0.676	0.042	0.753	0.214	0.163
의료시장개방에 대한인식			0.011	0.855	-0.064	0.339
	Adj R ² = 0.076		Adj R ² = 0.058		Adj R ² = 0.064	

IV. 고 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병원직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정도와 찬·반 태도, 의료시장 개방 찬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1개 대학병원직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조사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한 경기도 소재 1개 대학병원직원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병원직원을 대표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학병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중·소 병원 직원들의 의료시장개방 인식 정도나 찬·반요인 등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병원직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였고, 관리자만이 아니라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위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료시장개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인인 의사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설문조사로 병원직원의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찬·반 태도, 외국병원 이용의사 및 재진단의사 등을 알아보았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 행정직, 의사직, 간호직 순 이었다.

병원직원의 의료시장개방 찬성률은 72.2%로 윤여룡(2003)의 연구에서 외래환자의 찬성률이 56.5%인 것에 비하여 높았고, 한현진(2004)의 연구에서 병원인의 찬성률이 79.0%인 것보다 낮았다.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찬성률은 의료기사직이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간호직 79.2%, 행정직 70.5% 순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인데 반해, 의사직은 45.6%로 세 직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의사직중 전공의가 38.1%로 가장 낮았다.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반대율은 의사직이 35.4%로 가장 높았다. 의사직의 경우 함윤희(2005)의 연구에서 찬성률이 36.2%로 반대율 40.2%로 낮은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며, 허대석(2005)의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66.0%, 반대율이 34.0%인 결과와는 반대율은 비슷하나 찬성

률에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의사직 중 전공의는 반대율이 42.9%로 찬성률 38.1%보다 높았으며, 이 결과는 함윤희(2005)의 연구에서 전공의의 반대율이 40.0%로 찬성률 28.2%보다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직종 중 의사직이 다른 직종과 찬·반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의료시장개방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직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강화문항에서 의료기사직이 4.01점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간호직이 3.86점, 행정직이 3.80점, 순이었고, 의사직이 3.3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정영호 등(2004)의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들 간에 대체로 의료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전공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하는 의견으로 모아진데 비하여, 의사직만이 낮은 점수를 보인 차이가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문항은 의료기사직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간호직이 4.00점, 행정직이 3.87점 순이었고, 의사직이 3.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정영호 등(2004)의 연구에서 전문가 집단들 간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약학을 전공한 집단을 제외하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대체민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항은 행정직이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의료기사직 3.64점, 의사직 3.40점, 간호직이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정영호 등(2002)의 연구에서 각 전공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외국병원 이용의사와 외국병원에서재진단의사 모두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이 가장 높았고 의사직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의사직이 진단을 직접 시행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직종별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병원의 최우선 개선과제는 직종별 차이가 있었다. 행정직·의료기사직·의사직의 경우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1순위였으며, 간호직의 경우만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의 향상 이었다. 2순위는 행정직과 의료기사직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의 향상이었고, 의사직의 경우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감 해소, 간호직의 경우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향상이었다. 의사직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의 향상이 4순위로 다른 직종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의사가 진단 및 치료를 직접 수행하므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행정직에 비하여 의사직이 비차비 10.845인 것을 알 수 있다($p < 0.01$).

V. 결 론

이 연구는 병원직원의 일반적 특성별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찬·반태도, 외국병원 이용의사 및 재진단의사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1개 대학병원의 직원 450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직종별로는 의료기사직, 행정직, 의사직, 간호직 순으로 비의료인인 의료기사직과 행정직이 의료인인 의사직, 간호직 보다 높았다. 경력은 5년 이하에 비하여 많을수록, 직위는 일반직원에 비하여 높을수록 인식 정도가 높았다.

둘째,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찬성률은 의료기사직이 가장 높았고, 의사직이 가장 낮았다.

셋째, 직종별 의료시장개방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태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문항에서 의료기사직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직이 가장 낮았다. 대체민간보험제도의 도입 문항에서는 행정직이 가장 높았고, 간호직이 가장 낮았다.

넷째, 직종별 외국병원 이용의사와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는 의료기사직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직이 가장 낮았다.

다섯째, 직종별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병원의 최우선 개선과제는 행정직·의료기사직·의사직의 경우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1순위였으며, 간호직의 경우만 진단 및 치료기술 수준의 향상 이었다. 2순위는 행정직과 의료기사직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의 향상이었고, 의사직의 경우 대기시간에 따른 불편감 해소, 간호직의 경우 병원직원의 서비스 수준향상이었다. 의사직의 경우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의 향상이 4순위에 그쳤다.

여섯째, 의료시장개방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의사직이 가장 많은 찬성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외국병원 이용의사, 외국병원에서 재진단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과 직종 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찬성률과 의료시장개방 관련 현안과제, 외국병원 이용의사 및 재진단의사에서 직종별 차이가 있었고, 의료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병원의 개선과제에서 진단 및 치료기술수준의 향상과 병원 직원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에 직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결과에서 의료시장개방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직이 다른 직종과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국내병원과 국내의사들은 진단 및 치료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병원의 전 직종의 직원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철(2004), 한국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62
- 김용익(2002),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54-80
- 박동수(1995), 대학병원 관리자의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5-76
- 손영숙(1995),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대응전략. 경성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4-77
- 유승흠(2005), 양재모의 보건학. 계축문화사, 243-244
- 유승흠(2006), 병원경영, 수문사, 94-97
- 윤여룡(2003) 외래환자의 병원 선택요인과 의료시장개방 시 외국병원 선택 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79
- 이해중(2003), 시장개방의 범위와 방법, 연세대학교 보건과학 연구소, 6-7
- 정기택(2003), WTO DDA 협상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전망과 대응,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 9(1):84-89
- 정영호, 박순찬, 고숙자 등(2002), WTO 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7-155
- 정영호, 고숙자, 윤강재(2003),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8
- 정영호, 박하영, 권순만 등(2004),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공급자 행태분석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7-294
- 정동진(2004) WTO/GATS 하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법적문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9-197
- 한현진(2004),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병원인의 인식도 조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함윤희(2005),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대응방안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107

허대석(2005),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 설문조사, 의사신문, 2005.4.14, 48